

## 제 18 권 낙태

### 1. 살인하지 말라

출처: “A Practical Exposition of the Ten Commandments” in The Works of Ezekiel Hopkins, Vol. 1

저자: 이즈키엘 홉킨스(Ezekiel Hopkins, 1634-1690): 성공회 목사이자 작가. 영국 데번셔 크레디턴 샌드포드 출생.

역자: 조상철

십계명의 제 육계명은 처음부터 살인자였던(요 8:44) 사탄의 타고난 첫 번째 본성인 야만적이고 비인간적인 살인죄를 금지한다. 이 계명은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최초의 낙인찍힌 범죄, 곧 타락으로 인해 야기된 본능적 부패가 그 원인과 독성을 드러낸 가인의 범죄를 금지한다. 그는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기"(요일3:12) 때문에 자신의 아우 아벨을 죽인 자로서 파멸에 대한 훌륭한 예가 되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는 가장 어둡고 사악한 죄이며, 보통 하나님이 놀라운 섭리로 드러내셔서 징벌하시는 죄다. 살인은 이를 저지른 사람들의 양심을 끔찍한 불안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해서 살인을 증명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때에도 자백을 하게 한다.

성경에서 가장 흉악한 죄인으로 낙인 찍힌 두 죄인이 있는데 가인과 유다다. 한 사람은 그의 형제를 죽였고,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이 주님으로 모시던 분을 죽이고 이어서 자기 자신을 죽였다.

하나님은 살인을 너무나 싫어하고 가증스럽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제단이 비록 다른 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는 도피처가 될 수 있었지만, 살인자는 그 곳으로 도피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 살인을 행한 자는 율법에 따라 신성한 성소에서 끌려나와 처형되어야 한다.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출 21:14). 그러므로 요압이 도망하여 제단 뿔을 붙잡았을 때, 그를 죽이려고 보낸 사자들이 감히 피를 흘려 거룩한 성소를 더럽힐까봐 그를 죽이지 못했지만, 솔로몬은 명령을 내려 마치 고의적인 살인자의 피가 하나님께 바치는 아주 합당한 제물인 것처럼, 그를 성소에서 죽이게 하였다(왕상2:28-31).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살인을 금하신 후에, 하나님이 살인을 왜 그렇게 가증한 것으로 여기시는지 그 중대한 이유를 알려주신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창9:6). 따라서 살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짓밟는 것과 같다. 비록 타락이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순결함이 더럽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 곧 살아 있는 가장 사악하고 불경스러운 사람이라 할 지라도, 마음과 자유의지 그리고 피조물에 대한 지배력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다. 하나님의 모든 형상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인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 자신을 죽이려고 시도하는 사람으로 여기신다.

**살인은 부르짖는 죄다.** 피는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호소한다. 창세기 4장에서 아벨이 처음 흘린 피는 땅에서 하늘까지 들렸다. “네 아우의 피 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창4:10). 하나님은 반드시 피의 울음소리를 듣고 복수하신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피로 손이 얼룩진 사람뿐만 아니라, 그 범죄를 돕고 부추기는 자들도 동일하게 살인죄를 범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는 자들도 살인죄에 해당된다.

**1) 살인을 지시를 하거나 이에 대해 조언하는 자.** 다윗은 죄 없는 우리아를 죽이라고 사주를 했기 때문에 살인죄를 저질렀다. 이로 인해 하나님은 다윗을 살인죄로 책망하신다. “너는 암몬 자손의 칼로 그를 죽였다”고 말씀하신다(삼상12:9).

**2) 살인에 동의하는 자.** “십자가에 못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박게 하소서”(눅 23:21)라는 유대인들의 아우성치는 외침에 굴복하고 말았던 빌라도도, 비록 그의 손을 씻고 자신은 아무 책임이 없다고 했지만, 실상은 십자가에 못박은 자들 못지않은 죄를 지은 것이다.

**3) 살인을 숨긴 자.** 우리는 신명기 21장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얹혀진 것을 발견하고 그 처죽인 자가 누구인지 모를 경우,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모여서 그들의 손을 씻고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신 21:6-7)라고 항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만일 그들이 그 일을 보고도 숨겼으면 동일하게 살인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임을 암시한다.

**4) 살인이 발생했을 때 이를 알고도 처벌하지 않는 권력자.** 나봇이 이세벨의 악한 계략에 의해 죽임을 당하였을 때, 아합은 나봇이 처형될 때까지 그 음모에 대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나봇의 무죄를 밝혀주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야는 아합에게 살인죄를 선고하며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왕상21:19)라고 말한 것이다. 비록 우리는 아합이 나봇을 죽인 자들을 징계하지 않았다는 것 외에 살인에 대해선 어떠한 죄도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고 있지만, 그에게 살인에 대해 유죄가 내려졌고, 그로 인한 징벌도 그에게 내려졌다.

그리고 어떠한 측면에서도 살인을 범한 자가 처벌을 피하도록 묵인한 재판관들은 피로 땅이 더럽혀졌다는 말을 듣게 된다.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민 35:31,33)

~~~~~

여섯 번째 계명을 범하는 것은 자살, 살인, 살해, 존속 살인, 형제 살해, 유아 살해, 낙태에 의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끔찍한 범죄는 종종 끔찍하고 잔인하게 저질러지면서 하늘이 복수해 줄 것을 울부짖는다. - 오리지널 커버넌트 매거진(3권,1-3:16, 1881)

## 2. 소리 없는 학살

출처: Abortion, 3-6, 9, 15-21, The Banner of Truth Trust

저자: 피터 반스(Peter Barnes, 1899-1981): 호주 장로교회 목사; 바누아투에서 목사를 지낸 후 현재 맥스빌 교구에서 근무하고 있다.

역자: 김현준

존 파웰(John Powell)은 오늘날 광범위하게 자행되는 낙태를 “소리 없는 학살”이라고 했다. 이것은 정말 끔찍한 묘사다. 서구 민주주의에서 아직 나지도 않은 아이들을 이렇게 죽이는 것은 가히 나치 독일 치하의 유대인 학살과 견줄 만하다. 낙태에 대해 가장 강렬한 표현을 남긴 사람으로 디트리히 본회퍼(Dietrich Bonhoeffer)를 꼽을 수 있다. 그는 루터교 목사로서 히틀러가 1945년에 사형시킨 인물이다. 본회퍼는 나치주의를 반대한 만큼이나 낙태를 강하게 반대했다. 낙태에 대한 그의 관점은 여기에 인용할 만하다. “아직 자궁에 있는 태아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태아에게 부여하신 삶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태아를 사람으로 볼 것인지 말 것인지를 따지는 것은 단지 이 문제를 혼란스럽게 할 뿐이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창조하고자 뜻하셨고 이 태아가 고의적인 살해로 그 생명을 빼앗겼다는 것이다. 이게 살인이 아니면 뭐란 말인가?” 나치는 1933년 이전부터 벌써 유대인 핍박을 추진했다. 본회퍼는 이것을 목격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분명히 깨달았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면서 종종 읊조린 구절은 잠언 31장 8절이었다. “너는 말 못 하는 자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오늘날 증가추세에 있는 낙태와 이에 동조하는 세상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잠언이 말한 의무를 실천해야 할 것이다.

구호를 자주 외치지만 도덕 감각이 해이(解弛)해진 이 시대는 필연적으로 수많은 암울한 특징을 동반하게 마련이다. 하지만 두 가지 특징은 더 심각한데 그것은 바로 올바른 사고방식의 부재와 의미를 변형시킨 용어들이다. 수많은 곳에서 11살가량의 어린 소녀들이 낙태한다. 14살 된 아이가 낙태를 두 번이나 하는 일도 있다. 그런데 정작 이 소녀들은 술은 사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귀에 피어싱하려면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그런데 낙태할 일이 생기면 이런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후원하는 임신부 흡연 금지 캠페인은 임신부 흡연은 태아에게 해롭기 때문이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가 자동차 사고를 당하면 법원을 통해 보상을 받는다. 그런데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죽이면 아무런 조치가 없다. 사실 교묘하게 사회에 퍼진 가설이 있는데, 그것은 낙태를 지지하는 자들은 감수성이 있고 너그럽고 논리가 정연하고 지성적이며 현대인의 필요를 공감하지만 낙태를 반대하는 자들은 종종 독재주의로 기우는 독단적인 강경 노선 단체로 묘사되어왔다는 점이다.

더욱이, 태아는 “원형질 덩어리”나 “태아 세포”라는 딱지를 붙이지만, 낙태는 “임신 후 출산 조절 방법”으로 명명하거나 더 간단하게는 교활한 표현으로 “임신 중절”로 부르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의미를 변형시킨 용어들은 심원한 효과를 가져왔다. 언어는 소중히 여겨야 한다. 언어는 괜히 있는 것이 아니다.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말처럼 언어는 “의미를 담은 귀중한 잔”이다. 하지만 오늘날의 상황에서는 언어는 진실을 드러내기보다 은폐를 위한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 그러므로 진도를 나가기 전에 낙태가 진행될 때 정확하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매우 분명히 알아야 한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죽이는데는 세 가지 방법이 주로 쓰인다.** 첫째, 임신 초기에는 확장 소파술 기술(D&C)을 사용한다. 먼저 자궁 경부를 확장하고 자궁에 관을 삽입한다. 이 관은 흡입기관과 연결되어 있고, 흡입기관은 작은 태아를 찢어놓는다. 그리고 찢겨진 몸은 작은 가방에 싸서 버린다. 그다음으로, 소파기(搔爬器)를 사용하는데, 이 기구로 자궁의 벽을 모두 긁어댄다. 혹시라도 남아있을 태아의 일부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다. 종종 흡입관을 아예 사용하지 않는 일도 있다. 소파기가 태아의 몸을 찢고 태반을 긁어내는데 간편하기 때문이다.

이 기술은 임신하고 임신 석 달이 지난 산모에 매우 위험할 수 있다. 그때는 염수 낙태법을 사용한다. 이 기술은 소금 중독법으로 불리기도 한다. 순전히 소금으로만 해결하는 이 기술은 일단 자라고 있는 태아 주변의 액낭(液囊) 속에 있는 양막에 소금을 주입한다. 그러면 태아까지 소금이 주입되고 약 한 시간 후면 태아는 죽게 된다. 태아 피부의 외곽선은 소금에 타서 사라진다. 이 상태에서 하루가 지나면 산모는 진통하게 된다. 그리고 변색이 되고 온통 주름으로 찌그러진 태아를 낳게 된다. 소수의 태아는 산 채로 나오게 되는데, 드물게는 오랫동안 생명을 유지한다. 프로스타글란딘(Prostaglandin) 역시 임신하고 석 달이 지났을 때 도입되는 기술이다. 프로스타글란딘 화학약품을 자궁에 주입하면 산모의 조산 진통을 촉진하고, 죽은 태아를 낳게 된다. 하지만 프로스타글란딘으로 나오게 된 태아가 살아있게 되면 임신 중절 지지자들도 적잖이 당황하곤 한다.

세 번째 기술은 임신 기간이 좀 더 진행된 경우에 사용하는데, 바로 자궁 절제술이다. 이것은 제왕절개술과 같다. 다만 자궁 절제술의 목적은 아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기 위한 것이다. 이 경우 아기는 곧바로 죽거나 절제된 채 죽게 내버려 둔다.

**종종 태아가 언제 인간의 모습을 갖추는지 알 수 없다고들 한다.** 사실 미연방 대법원은 1973년에 이런 관점을 유지하겠다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는데,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그것은 실제로 낙태를 승인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았다. “우리로서는 생명이 언제 시작되는지에 대한 난처한 질문까지 답변해줄 수 없다.” 이 말의 취지는 앞으로 신학적이고 철학적이고 생대학적인 고려가 법정에서 더는 설 자리가 없음을 천명한 것이다. 이렇게 진술한 표현은 경양한 인상을 주지만, 생물학적인 실체와 마주하는 일은 피하겠다는 뜻이다. 설령 대법원이 정말 경양한 태도를 보였다 할지라도, 생명에 대한 대법원의 그런 경솔한 태도는 경종을 울리는 것이 되었다. 생명이 언제 시작되는지 불확실하다 해도 대법원의 의무는 생명을 지키는 것이 돼야 하고, 대법원의 결정은 인간 생명을 존중해주는 것이 돼야 하지 않았을까?

현재 낙태는 영국과 미국과 호주에서 아주 많이 시행되고 있다. 임신한 태아 서넛 중 한 아기는 자궁에 있을 때 살해당한다. 낙태 통계치는 정말 전율스러운 정도다. 한 예로, 미국에서 1973년 이후 십 년간 죽은 태아는 많게는 15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런 통계를 바탕으로 계산해보자면, 넉 달간 낙태로 죽은 태아의 수는 어림잡아 제2차 세계대전 시 사망한 미국인의 전체 숫자와 맞먹는다. 자궁이 전장(戰場)보다 더 위험한 곳이 된 셈이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은 배려와 연민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모든 아이는 내가 원하는 아이

여야 한다”라는 기발한 문구에 완전히 힘을 실어 시행되고 있다. 현대 인도주의자들은 더 이상 벗어날 허용 기준이 없다. 그들 자신을 점검할 기준이 전혀 없게 되었다. ... 선지자 아모스에게는 다림줄이 있었다. 이 줄로 이스라엘을 판단할 수 있었다(암 7:7-9). 하지만 현대의 세속인은 어떤 다림줄도 없이 방치되어 있다. 그 결과, 사람들은 낙태 논쟁에서 잘못된 대답도 표현하지 못하게 되었고, 올바른 질문도 생각해낼 수 없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 낙태.** 수시로 논쟁이 되는 것은 성경이 낙태라는 주제에 대해 아무런 말이 없다는 것이다. 성경이 낙태 문제를 거론한 것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에 담긴 중요 원리는 상기할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과 믿음과 생명에 필수적인 모든 제반 항목에 대해 하나님의 모든 뜻은 성경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거나 선하고 필연적인 귀결을 통해 성경에서 추론할 수 있다”(1장 6항). 이런 전제하에 낙태에 관한 성경적 관점을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낙태에 관한 어떤 연구든지 첫 시작은 출애굽기 21장 22-25절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이 본문은 모호하기는 하지만 두 가지로 번역될 수 있다. 먼저 NASB 성경 번역본을 보자.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덴 것은 덴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 번역이 옳다면 산모의 생명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보다 더 귀하다는 관점을 정당화할 수 있다. 그렇다면 태어나지 않은 아이는 완전한 인간이라기보다는 미성숙한 생명으로 간주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번역도 낙태에 대해 개방적이지 않고 오히려 금한다. 이 본문을 보면 사고로 낙태시키면 벌금을 내게 된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추정을 한다면, 고의적인 낙태는 반드시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출애굽기 21장 22-25절을 통해서는 고작 낙태 허용은 임신이 산모의 생명을 위협하는 극히 드문 경우에만 가능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본문의 요지는 태아를 덜 보호하라는 뜻이 아니라 과실 치사로 인한 살인에 대해 일반적으로 사형 선고를 내리지 않는 것처럼(수 20장) 출산을 앞둔 여자를 크게 보호하라는 뜻이다.

두 번째로 출애굽기 21장의 흠정역본의 번역을 살펴보면, 산모나 태아의 죽음을 모두 언급하고 있다. 내용은 이렇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여인의 열매를 떨어뜨려 심각한 상해를 끼쳤다면 그는 확실히 벌을 받을 것이라 그 남편의 청구대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리고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하리라.”

이 번역을 보면 낙태라고 명시한 것이 없고, 대신 조산아를 가리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일 조산아가 살았다면 그 가해자는 벌금을 내게 된다. 하지만 조산아가 죽었다면 생명은 생명으로 갚게 된다. 사실 이 구절을 이렇게 이해한 사람은 학식 있는 청교도 주석가 매튜 풀(Matthew Poole)과 오랫동안 구약 주석의 기준을 마련한 카알(Keil)과 델리취(Delitzsch)였다. 칼빈의 주석도 큰 지침을 제공한다. 위대한 제네바의 종교개혁자는 이렇게 썼다. “태아가 어머니의 자궁에 있긴 해도 이미 인간체다.” 따라서 칼빈은 이 구절이 산모나 아이의 죽

음을 모두 언급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그래서인지 칼빈은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죽이는 것에 강력히 항의한다. “들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가정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더 끔찍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죽은 자에게 가정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태아가 빛을 보러 세상 밖으로 나오기 전에 자궁 속에 있을 때 죽이는 것은 확실히 가장 흉악한 악행으로 봐야 할 것이다.”

출애굽기 21장 22-25절에 대한 이 두 번째 번역은 오늘날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지는 못하다. 그래도 호의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은 많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유산이 언급되는 부분에서 낙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다(이 단어는 구약성경의 다른 곳에서 발견된다(참조, 창 31:38; 호 9:14)). 대신 출애굽기 21장 22절은 단순히 “이탈하다” 혹은 “떠나다”에 해당하는 단어를 채택했다. 이 용어의 실례로 창세기 12장 4절에 나오는 하란을 떠나는 아브라함을 들 수 있다. 또 출산 시 아이의 살아있는 모습을 묘사할 때도 사용되었다(창 25:26; 38:28-30). 민수기 12장 12절에서는 이 단어가 사산아를 지칭하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현대 번역자들이 이 단어를 ‘낙태’라고 한 것은 번역이라기보다 ‘해석’이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출애굽기 21장이 산모나 태아의 죽음을 거론한다고 보는 두 번째 이유는 보다 설득력이 강하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늘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인간체로 말한다는 점이다. 자궁 속에 있는 모든 아이는 경이롭고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이다(욥 31:15; 시 139:13-16; 사 44:2, 24; 렘 1:5). 하나님이 아이를 만드시는 방법은 우리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이다(전 11:5). 수태부터 죽음까지 생명은 죽 이어진다. 그러므로 다윗은 자신의 근원을 자궁에서부터 언급했고, 그는 자궁에 처음 나타난 인간의 인격을 대명사로 말하고 있다(시 139:13). 심지어 죄를 거론할 때도 신생아가 아닌 태어나지 않은 유아까지 소급한다(시 51:5; 58:3). 결론적으로, 성경은 태아를 항상 사람으로 본다. 배 속의 아이라도 될 수 있고(창 25:22, 눅 1:41, 44) 하나님을 위해 성별되며(렘 1:5; 갈 1:15),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눅 1:15), 축복을 받는다(눅 1:42). 더 나아가 동일한 헬라어 단어가 태어나지 않은 세례 요한과 갓출생하신 아기 예수(눅 2:12, 16), 예수께 데려온 어린 아이들(눅 18:15)을 묘사하는데 사용되었다(눅 1:41, 44). 태아가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구절들을 어떤 의미로 봐야 할지 어렵게 된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을 때 그가 마리아의 자궁으로 들어가셨다는 사실은 확실히 의미심장하다. 우리 주 하나님이 인간과 연합하게 되어 성육신하신 때는 우리 주님이 태어난 때부터가 아니라 수태 된 때부터다.

태아는 살아있는 인간이므로 자궁에서 죽을 수 있다는 말이 성립된다(욥 10:18). 심지어 바울도 자신을 낙태한 자로 언급했다. 물론 살아있는 낙태아로 말이다(고전 15:8). 선지자 예레미야가 크게 낙담해서 외쳤을 때 그는 자신이 태어난 날뿐만 아니라 자신이 모친의 자궁에 있을 때 자신을 죽일 수도 있었던 사람을 저주했다. 그 사람이 결국 자신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이다(렘 20:14-18). 만일 선지자가 20세기 유럽에서 살았다면 그의 바람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예레미야는 뼈뺀 시선으로 자신의 저주를 받은 익명의 수신자를 정죄했다. 왜냐하면, “그가 자신을 태에서 죽이지 않았기” 때문이다(렘 20:17). 여기서 태에 있는 아이를 ‘죽이는’ 일을 묘사하는데 사용한 단어는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50-51절에서 골리앗을 ‘죽이는’ 것을 설명할 때 사용한 단어와 같다. 분명한 것은, 예레미야는 “임신 중절”과

같은 완곡어법을 몰랐다는 것이다.

**성경을 훑어보면, 태아를 죽인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했다.** 선지자 엘리사는 장차 이스라엘의 대적이 될 시리아의 왕 하사엘의 범죄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다. 이때 엘리사가 한 말을 보면 이렇다. “네가 어린아이를 메치며 아이 밴 부녀를 가르리라.” 훗날, 같은 악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조 가운데 한 명인 므나헴을 통해 이어진다. 이교도인 암몬 자손이 아이 밴 여인의 배를 갈랐을 때 선지자 아모스는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닥쳤다고 선언했다(암 1:13). 이 모든 경우를 살펴보더라도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은 낙태라는 주제에 명확한 지침서를 제공하고 있다.

**낙태 논쟁에 있어서 성경은 아이를 불 속에 던져 희생시킨 사건을 언급한다.** 하나님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완전히 찰 때까지 이스라엘의 가나안 입성을 허락하지 않으셨다(창 15:16). 가나안 족속의 문화가 더욱 타락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도록 준비시키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이웃 나라 이교도를 따라 하지 말라고 경고하셨다(레 18:24-30; 20:23). 하나님이 특별히 경고하신 일은 아모리 신 몰렉에게 아이를 불 속에 던져 희생제물이 되게 하는 일이었다(레 18:21; 20:2-5; 신 12:31; 18:10). 하지만 솔로몬이 집권할 때도 벌써 몰렉을 경배하는 일이 이스라엘에 있었다(왕상 11:7). 아이를 희생제물로 바치는 일이 곧 모압까지 퍼졌고(왕하 3:27) 심지어 유다까지 이르렀다. 이때는 주전 8세기경 아하스가 다스리던 때였다(왕하 16:3; 대하 28:3). 주전 7세기경에 므낫세의 범죄도 그와 같았다. 주전 722년에는 앗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 이렇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이스라엘이 이러한 잔인한 우상숭배 행위를 했기 때문이었다(왕하 17:17; 시 106:34-39).

이렇게 아이를 희생제물로 바치는 일은 선지자들을 격동시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게 하고 회개를 명하게 했다. 이사야에 이어 예레미야와 에스겔 역시 특별히 이런 일에 자극받아 몰렉 숭배를 비난했다(사 57:5; 렘 7:31; 19:4-5; 32:35; 겔 16:20-21; 20:31; 23:37, 39). 하나님이 유다 민족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 이유는 그들의 손이 피로 가득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다. 그것은 아마도 최소한 아이를 희생제물로 바치는 일을 영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었을 것이다(사 1:15). 훨씬 후의 일이지만, 예루살렘이 파국의 끝으로 몰렸을 때 경건한 왕이었던 요시야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개혁을 단행했다. 이 개혁의 일환에는 아이를 몰렉에게 희생제물로 바치는 일을 금지하는 것도 포함되었다(왕하 23:10). 아이를 희생제물로 바치는 곳이었던 예루살렘 남쪽의 힌놈 골짜기가 훗날 예수께서 지옥을 묘사하실 때 언급하신 장소라는 것을 생각하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눅 12:5). 지옥 또는 게헨나라는 단어는 헬라어 게헨나에서 유래한 것인데, 이것은 또한 히브리어 힌놈(hinnöm: 힌놈) 게(gê: 골짜기)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은 낙태 사안에 대해 우리에게 많은 말을 한다. 오늘날 우리는 자녀가 없어 울었던 믿음의 여인 라헬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다(마 2:18). 낙태를 호의적으로 보면 안락사와 영아 살해도 호의적으로 보게 될 것이다. 바로와 헤롯이 시행한 일을 살펴보자(출 1장; 마 2:16-18).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변함없이 죽음을 사랑한다(잠 8:36).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생명도 인간의 생명이다. 그러므로 낙태는 살인을 금한 하나님의 계

명에 포함된다(출 20:13). 하나님은 태아를 기억하신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  
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시 27:10).



### 3. 성경과 생명의 신성함

출처: *Abortion: A Rational Look at an Emotional Issue*, copyright 1990, 2010;

저자: R. C. 스프로울(1939-2017): 장로교 신학자이자 교수, 장로, 리고니어 성경 및 신학 연구 아카데미 회장, 리고니어의 설립자이자 의장.

역자: 염지웅

성경에 의하면 사람 생명의 존엄성은 창조에 근원을 둔다. 인류는 빅뱅이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신중하게 창조된 결과물이다. 사람의 존엄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유래한다. 사람은 유한하고 의존적이고 파생적인 존재로서, 그의 창조주로부터 높은 가치를 부여받는다.

**창조기사는 사람의 존엄성에 대한 기초를 제공을 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창 1:26-27).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창조는 사람을 다른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게 한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각인은 하나님과 사람을 특별하게 연결해 준다. 비록 사람을 하나님처럼 간주하는 성경적인 보증은 없지만, 그럼에도 사람은 창조주와의 독특한 관계에서 오는 높은 존엄성이 있다. 창조를 통해서 인류에게 주어진 존엄성이 타락으로 인해 지워지거나 취소되었다는 주장이 종종 제기되어 왔다. 악이 사람의 모양을 훼손하였다면 원래의 형상이 여전히 온전할 수 있을까? 타락으로 인한 어떤 심오한 것이 인류의 위대함을 더럽혔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반드시 구별해야 한다.

**좁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의 도덕적 능력과 행위에 관한 것이다.** 창조를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반영하고 반사하는 능력과 책임을 부여받았다. 타락 이후로, 그 거울은 죄로 인하여 얼룩져 버렸고, 우리는 도덕적 완전을 위한 능력을 상실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도덕적인 상실로 인하여, 본연의 인간성까지 잃어버리지는 않았다. 사람은 더 이상 순수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사람이다. 우리가 여전히 사람인 이상, 넓은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는 여전히 가치가 있는 존재들이다. 우리는 더 이상 존엄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가치를 지닌다. 이것이 반복적으로 울려 퍼지는 구속을 위한 성경적인 메시지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야말로 그분이 구속하시고자 하는 그 피조물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사람의 죄에 대해 말하는데 이것이 사람에 대한 낮은 평가를 하는 것일까? 실제로 그들은 사람의 미덕에 대하여 낮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에 상응하는 만큼, 사람이 가지는 가치나 중요성에 대해 낮은 평가를 하지 않는다. 성경이 사람의 존엄성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죄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만약에 어떤 쥐가 다른 쥐의 음식을 훔친다면, 우리는 도덕적으로 그다지 분노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에 어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음식을 훔친다면, 우리는 곧바로 관심을 갖는다. 성경은 사람의 도둑질은 쥐가 도둑질을 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게

받아들이는데, 이것은 사람이 쥐보다 높은 가치를 지닌 존재이기 때문이다. 시편의 기자가 말하듯이, 우리는 “천사보다 조금 낮게”(시 8:5) 창조되었다. 이러한 총위관은 우리 자신의 인간성 안에 깊이 내재되어 있다. 예컨대, 미국의 대통령이 살해를 당한다면, 그 행위를 단순히 타살 또는 살인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그런 경우에 암살이라는 특별한 용어를 사용한다.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는 동안, 방송 리포터는 가장 강력한 문구로 그의 분노를 표현하고자 했다. 그는 이 암살에 대해서 “마귀처럼 악랄한, 악마처럼 끔찍한, 비인간적인” 같은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 당시 나는 도대체 무엇이 케네디의 죽음을 단순한 살인으로 보기 어렵게 만드는지 의아해 했다. 마귀나 악마만이 살인을 저지르는 것은 아니다. 리 하비 오스왈드는 달라스에서 방아쇠를 당긴 사람이었다. 그렇다면, 케네디 대통령이, 당일에, 동일한 도시에서, 동일한 사람에 의해서 살해를 당한 티핏(Tippit) 경관보다 사람으로서 더 높은 서열상의 존엄성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을까? 결코 아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살해가 그의 존엄성에 대한 공격인 만큼, 티핏 경관을 살해한 행위도 마찬가지이다. 이 둘 모두가 사람이기에, 각자가 개인적인 가치와 존엄성을 가진다. 케네디의 존엄성은 티핏 경관의 존엄성과 같다. 다만, 티핏 경관의 죽음보다 케네디 대통령의 죽음이 더 격분을 일으키는 이유는 그가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최상의 공인이다. 동일한 이유로 사람에 대한 범죄는 쥐에 대한 범죄보다 훨씬 심각하다. 쥐와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지만, 사람의 사명은 쥐의 사명과 비교할 수 없이 고상하다. 쥐가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 사람은 이 지구를 통치하는 역할을 부여받았다. 쥐가 아닌 사람이 피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다. 사형제도가 생명의 존엄성에 반할까? 사람이 특별한 존엄성을 가지는 원칙은 창세기 사형 제도의 제정에서도 엿보인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창 9:6). 이 성구는 예언이 아니다. 이것은 단순히 칼을 의지하는 자는 칼에 의해서 죽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살인죄의 경우 사형 집행을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다. 창세기에서 사형제도의 도덕적 근간은 생명의 존엄성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성경적인 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의 생명은 대단히 신성하므로, 이것을 악의적으로 파괴하는 살인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말씀한다. 이 성구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에 대한 공격을 자신에 대한 도발로 간주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우리는 이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살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에 대한 공격이다. 하나님께서는 살인을 하나님 그분을 죽이고자 하는 암묵적인 시도로 간주하신다. 생명의 존엄성은 십계명을 통해서 강화가 되고, 재확인된다. 우리는 출애굽기 20장 13절에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읽는다. 성경에서 살인을 금지하는 명령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도 통용된다. 중범죄를 억제하는 도덕적인 근거로서 자주 인용이 된다. 펜실베이니아가 살인죄에 대한 사형 집행을 부활시키고자 투표를 했을 때, 그 안건은 주지사인 샤프(Shapp)에 의해서 부결되었다. 샤프는 그의 거부권을 행사한 근거로서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뉴스 미디어에게 설명했다. 그러나 샤프 주지사는 계속해서 성경을 더 읽어야 했다. 만약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한 페이지만 더 넘긴다면, 어떤 사람이 살인을 금하는 명령을 어겼을 경우, 하나님의 법이 무엇을 요구하는 지 알 수 있다.

“사람을 쳐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출 21:12). 살인에 대한 법적인 형벌은 피해자의 존엄성으로 인하여 범죄의 중대성이 강조된다. 생명은 너무나도 신성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절대로 파괴되어서는 안 된다. 다음과 같이, 많은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사람 생명의 존엄성을 말씀한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욥 33:4).

“여호와와가 우리 하나님하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시 100:3).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룰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사 45:9-12).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사 64:8).

**흥미롭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거룩함에 대한 구약성경의 가장 중요한 견해를 제시한다.** “옛 사람에게 말한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마 5:21-22).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명의 거룩함을 이해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여기서 예수님은 구약성경 율법의 함의를 확장시킨다. 그는 십계명을 좁고 단순하게 이해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한다. 그 당시 율법학자들은 그들이 율법의 명시적인 측면을 준수하기만 한다면, 그들의 위대한 미덕에 박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자신만만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의 더 넓은 의미를 파악하는데 실패했다.

예수님은 율법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것은 그 넓은 의미에 분명히 함축되어 있다고 보신다. 이러한 율법의 성질은 예수께서 간음에 대한 금령을 확장하신 것에서 볼 수 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마 5:27-28). 여기서 예수님은 육체적인 간음 행위를 삼간 사람이라도 반드시 그가 그 율법을 온전히 순종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신다.

간통에 관한 율법은 복잡한 법으로서, 실제 불법적인 성관계, 곧 실제적인 육체적 간통뿐만 아니라 욕망과 간음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예수님은 욕망을 마음의 간음이라고 표현하셨다. 이 율법은 특정한 부정적인 행동과 태도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함축적으로, 특정한 적극적인 행동과 태도를 요구한다. 즉, 간통을 금하려면 정조와 순결이 요구된다.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패턴을 살인 금지에 적용시킨다면, 살인의 넓은 정의에 포함된 모든 것을 삼가야 하는 것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살리고, 개선하고, 생명을 돌보는 일을 하라는 명령으로 이어진다. 우리는 살인이 초래하는 모든 결과를 피하면서 동

시에 삶을 증진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 예수께서 정욕을 간통의 일부로 여기신 것과 같이, 정당하지 못한 분노와 비방을 살인의 일부로 보셨다. 정욕은 마음의 간음인 것처럼, 분노와 비방은 마음의 살인이다. 하지만 욕망과 비방 같은 문제를 포함하도록 십계명의 범위를 확장하면서도, 예수님은 불법적인 육체관계를 실제로 갖는 것과 단지 욕망을 갖는 것이 동일한 분량으로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비방이 살인만큼 악하다고 말씀하시지 않는다. 다만, 그는 살인을 금하는 율법 안에 부당하게 사람을 다치게 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금하는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고 말씀하신다.

**이 모든 것이 낙태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우리는 생명의 신성함에 대한 강한 존중을 알 수 있다. 비방과 같은 마음의 살인은 ‘잠재적인’ 살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분노와 비방은 육체적 살인이라는 최종적인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에 잠재적인 살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물론, 항상 그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분노와 비방을 금지하는 이유는, 분노가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삶의 질에 실제적인 해악을 끼치기 때문이다.

우리가 낙태에 관해서도 생명의 존엄성을 논의한다면, 미묘하지만, 적절한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 태아는 의심할 여지가 없이 잠재적으로 살아있는 인간이다. 다른 말로, 태아는 성장하는 존재다. 가능성만을 내재한 정지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다. 태아는 역동적인 성장과정 가운데 있으며, 인위적인 간섭이나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없다면, 반드시 완전하게 실체화된 인간이 될 것이다.

살인을 반대하는 것은 생명을 증진하는 것이다. 낙태는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생명을 증진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이들이 주장하기를, 낙태는 자식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강변할 수 있겠지만, 이 글의 주제인 태아의 생명을 증진하지 않는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가진 생명의 탁월한 존엄성을 일관성 있게 말씀한다. 가난한 자들, 억압받는 자들, 과부들, 고아들, 그리고 장애인들, 이 모두가 성경에서 귀하게 존중받는다. 그러므로 낙태에 관한 어떠한 담론이든지, 궁극적으로 이 성경의 중요한 주제와 씨름해야 한다. 태아의 생명을 가볍게 다룬다면,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에 대한 신성함에 암울한 그림자가 전반적으로 드리워진다.

~~~~~

부자연스러운 행동일수록 더 끔찍하다. 사람이 자신의 혈육에게 잔인하게 행하는 것보다 더 부자연스러운 것은 없다. 심지어 여자가 자신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죽이려고 다니는 것은 가장 부자연스럽다. 이런 기괴하고 끔찍하게 잔인한 행동에 대해 귀가 솔깃하다니! - 월리엄 거넬

#### 4. 인류와 죽음의 요소

출처: *Third Time Around: The History of the Pro-Life Movement from the First Century to the Present*, Wolgemuth & Hyatt, Publishers, Inc.

저자: 조지 그랜트(1954-): 교구장로 교회의 목사이자 교회 개혁가, 작가, 킹스메도우 스터디 센터 이사, 프랭클린 고전 학교 설립자, 뉴 프랭클린 대학교 총장.

역자: 박기철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잠 8:36).

슬프게도, 모든 인류가 예외 없이 죄인이기 때문에, 인류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죽음이다. 사망 현상에 대한 프로이드의 의견을 전적으로 배제한다면, 사망 현상은 죽음과 부패를 향하는 인간 본성의 악한 성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은 병들었기에 죽음을 향하는 성향을 지닌다(롬 5:12).

타락 시, 인류는 갑작스런 죽음의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렘 15:2). 그 때에 우리 모두는 사망과 언약을 맺고 묶이게 되었다(사 28:15). 성경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잠 14:12; 16:25).

우리는 알던 모르던 간에 죽음을 선택한다(렘 8:3). 사망은 우리의 목자가 되었다(시편 49:14). 우리의 생각은 사망에 고정되어 있고(롬 8:6), 우리의 마음은 죽음을 추구한다(잠 21:6). 우리의 육체는 사망에 의해 지배된다(롬 8:2). 우리는 죽음의 리듬에 맞춰 춤을 추면서(잠 2:18), 사망의 방으로 내려간다(잠 7:27).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롬 3:23), “죄의 삯은 사망이다”(롬 6:23).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니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롬 3:10-18). 결국 하나님을 싫어하는 모두는 사망을 사랑하게 된다.

의심할 여지없이 낙태와 영아 살해와 방임과 유기는 항상 인간 사회의 평범하고 자연스런 부분이 되어왔다. 태초부터 인류는 타락한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기발한 수단들을 고안해왔다. 그리고 영아 살해는 그중 대표적인 것이었다.

실로 오래전부터 모든 문화는 무죄한 아이들의 피로 물들여져 왔다. 로마 시대의 영아들은 원치 않게 성벽 밖으로 유기되었으며, 먹이를 찾아 떠도는 야생 동물들의 공격과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죽어갔다. 그리스인들은 가혹하게도 자주 임신부들에게 낙태 유도제 등을 주곤 했다. 페르시아인들은 매우 정교한 낙태술을 고안해왔다. 중국 임신부들은 두꺼운 줄로 자신의 허리를 매우 심하게 묶어 낙태를 유도했으며, 이로 인해 혼수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고대 인도와 아랍 사람들은 피임약을 만들었다. 원시 가나안 민족들은 자신들의 몰렉신

에게 희생제물을 바치기 위해 자녀들을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에 던져 넣었다. 폴리네시아인들은 임산부들의 배를 큰 돌로 치거나 배 위에 뜨거운 석탄을 올려놓는 고문을 시행했다. 일본 여인들은 태아 살해를 위해 끓는 가마솥 위에서 출산했다. 이집트인들은 갓난아이들의 배를 갈라 내장을 꺼내고 사지를 자르기를 좋아했다. 그리고 나서 그 아이들의 콜라겐을 모아 화장품 크림을 만드는데 사용했다.

고대 세계의 위대한 사상가들이었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세네카, 퀸틸리아누스, 피타고라스, 아리스토파네스, 리비우스, 키케로, 헤르도토스, 투키디데스, 플루타크, 에우리피데스 등은 이런 영아 살해 행위에 대해 아무런 비판도 하지 않았다. 정작 그들 중 대부분은 실제로 영아 살해를 권하기도 하였다. 그들은 매우 다양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 영아 살해에 대해 냉담하게 의논하였다. 그들은 아무렇지 않게 영아 살해를 위한 여러 합법적인 방법에 대해 서로 토론했다. 그들은 즐겁게 주사위 놀이하듯 생명을 다루었다.

낙태와 영아 살해와 방임과 유기는 인간 사회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했기에 그것들은 인기 있는 전래 동화와 신화와 우화와 전설에 있어서 반복되는 이야깃거리가 되었다.

예를 들면 로마 전설에 등장하는 로물루스와 레무스의 이야기는 유기된 아이들의 행복한 결말을 담은 이야기다. 오이디푸스 이야기도 유기된 한 아이가 목자에 의해 발견되어 후에 위대한 왕이 된다는 이야기다. 전설에 따르면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온 왕도 유기로부터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 페르시아 왕국을 세운 고레스 왕은 영아 살해로부터 온 좋게 생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머의 전설에 따르면 트로이 전쟁을 야기한 무분별하고 음란한 파리스 왕 또한 유기된 희생양이었다. 여러 설화에 따르면 고대 그리스 미시아 지역의 왕이었던 텔레포스와 스페인 쿠네테스 지역의 통치자였던 하비우스는 어린시절 유기를 당했다고 한다. 올림푸스의 최고신인 제우스도 어린시절 유기를 경험했다. 하지만 제우스도 자신의 두 쌍둥이 아들인 제토스와 암피온을 유기시켰다. 비슷한 신화에서 포세이돈, 아이스쿨라피우스, 헤파이스토스, 아티스, 키벨레 또한 어린 시절 버려져 죽을 뻔하였다.

그들은 죄와 죽음의 하인이 되어 수렁에 빠졌기 때문에 자신의 자식들을 죽이는 것은 봄이 되면 비가 내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그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유산을 파괴하는 것은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본성적인 것이었다. 그들은 자궁의 열매를 파괴하는 일을 특별히 잔인하다고 보지 않았다. 영아 살해는 그들의 문화라는 옷감에 잘 짜여있었다. 그들은 그것을 매우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다. 그들은 영아 살해 행위를 괜찮고 정당하며 옳은 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그들은 옳지 않았으며 끔찍하게 잘못되었다.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생명은 창조 질서 위에 부여된 은사다. 생명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지구는 그야말로 생명으로 충만하다(창 1:20, 레 11:10, 22:5, 신 14:9). 그리고 이 신성한 충만함이 최고로 영광스럽게 나타난 것은 인류다. 이러한 위대한 은사의 신성함을 파괴하는 것은 거룩하고 정의롭고 진실한 모든 것들을 대항하는 것이다(렘 8:1-17, 롬 8:6). 생명의 신성함을 파괴하는 것은 심판과 징벌과 저주를 초래하는 것이다

(신 30:19-20). 그것은 재앙과 저주와 파멸을 구하는 것이다(렘 21:8-10).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갈 6:7).

그러나 주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행 17:25).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시며(시 39:9), 생명을 지키시는 분이시며(시 27:1), 생명의 주시며(행 3:15), 생명의 회복자시다(룻 4:1). 그는 사람을 죄와 사망의 손아귀에 붙잡힌 채 아무 소망 없는 상태로 남겨두지 않으신다. 그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며(행 5:20), 세상의 생명이신(요 6:51)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사망의 끈을 끊으셨다(고전 15:54-5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요롭고 충만한 생명과 황량하고 빈곤한 사망 사이에서 선택할 기회를 주셨다. 한편으로는 풍요하고 충만한 생명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황량하고 빈곤한 사망이다(신 30:19).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된 자들은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골 2:13). 이와 반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은 사망을 사랑한다(잠 8:36). 그러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자들은 생명의 달콤한 구원을 얻게 된다(고후 2:16).

결론은 분명하다. 낙태 반대 운동과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동의어다. 이 둘은 서로 떨어질 수 없기에 믿음이 있다면 낙태를 반대할 것이다. 게다가 현재 역사 속에서 일차적인 갈등은 항상 있어 왔고 어디서나 모든 인간의 자연적 성향에 대항하여 생명을 위한 교회의 싸움은 항상 있을 것이다.

죽음은 그 어두운 그림자를 모든 인간관계에 드리어 왔다.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그 망령된 죽음과 놀아나며 죽이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한다. 슬프게도 그러한 뻔뻔함이 상상을 초월하는 가장 기괴한 정욕을 초래했는데 그것은 무죄한 아이들을 살해하는 것이다. 무죄한 아이들을 도살하는 자들은 극악하고 교활한 광명의 천사의 빛에 의해 눈이 멀고, 마비되고, 낮이 나간 자들이다(고후 11:14). 하나님께 감사한바, 이러한 파괴적인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 현재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자유와 정의가 있다. ‘그리스도 안에’ 죽음의 요소에 대한 치료제가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오랜 세대 동안 지배해 오던 죽음의 딜레마에 대한 해답이 있다.

## 5. 낙태 주장들에 대한 답변

출처: *Is Abortion Really So Bad?*

저자: 조엘 비키 (1952년- ): 미국의 개혁주의 목사이며 청교도 신학자. 미국 미시간주 그랜드 래피즈에서 목회를 하고 있으며 청교도 개혁 신학교 총장. 조직신학과 설교학을 강의. 웨스터 민시간 대학교, 토마스 에디슨 대학교, 네덜란드 개혁신학교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공부.

역자: 정영진

합법적 낙태의 정당성은 무엇인가? 낙태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주장을 검토하여 이 관행이 기반으로 하는 기초가 얼마나 강한지 살펴보자.

**주장 1: 태아는 인간이 아니므로 죽임을 당할 수 있다.** 이 주장은 태아는 결국 인간 아이가 될 것이지만, 아직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나 과학은 다르게 말한다. 첫째, 배아(embryo)와 태아(fetus)는 그리스어와 라틴어 단어인데, 단순히 “어린 아이”를 의미한다. 과학자들이 인간 배아 또는 태아에 대해 말할 때, 그들은 그것을 다른 종의 범주에 넣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과 같은 발달 단계에 대한 기술 용어로 사용한다. 인간 태아는 자궁에 있는 한 어린 인간이다. 어머니가 태아를 “내 아기”라고 부르거나 임신 관련 책에서 “당신의 아이”라고 쓰는 것은 자연스럽고 옳다.

둘째, 수정부터 아이는 자신을 인류의 생물학적 종 분류인 호모 사피엔스로 분명히 식별되는 고유한 유전 코드를 갖고 있다. 또한 아이의 DNA에는 어머니와 구별되는 코드가 있어 아이가 몸의 일부가 아니라 몸 안에 일시적으로 살고 있는 별개의 개체임을 보여준다.

셋째, 초음파 영상은 초기 발달 과정의 배아가 알아볼 수 있는 인간 형태로 자라는 것을 보여준다. 아이는 조식 덩어리가 아니라 매우 복잡하고 작은 아기이다. 수정 후 3주가 되면 아기의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몸 전체에 혈액을 공급한다. 6주가 되면 아기의 뇌파를 추적할 수 있다. 사실상 모든 외과적 낙태는 뛰는 심장과 정상적 기능의 뇌를 죽인다. 8주가 되면 팔, 손, 다리, 발이 잘 발달되고 아이의 지문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수정 후 11주가 되면 아기의 모든 내부 장기가 존재하고 기능한다. 임신의 첫 3분기가 끝날 즈음, 아기는 발차기를 하고, 회전하고, 뒤집고, 손을 오므렸다 폈다하고, 표정을 짓는다.

합리적인 기준에 따르면 인간 태아는 어린 인간이다. 무고한 아기를 죽이는 것은 살인이다. 그것이 바로 낙태의 산물이 그토록 추한 이유이다. 잘려진 손, 발, 머리가 가방에 싸여 버려진다. 우리는 직관으로 뭔가 섬뜩한 것을 느낀다. 사람들은 쇠고기나 닭다리 사진을 보고 개의치 않을 수 있지만, 낙태 사진은 우리를 두렵고 슬프게 한다. 왜냐하면 그 사진들은 분해된 인체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태아는 소중한 인간이며 보호받아야 한다.

**주장 2: 태아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 아니다.** 새끼 캥거루가 어미 주머니에 살기 때문에 캥거루가 아닌가? 당연히 그렇지 않다. 인간의 위치와 상황은 인간을 덜 인간적으로 만들지 않는다. 의존성에 근거한 낙태에 대한 주장은 위험한 근거를 따른다. 의존이 사람을 덜 인간적으로 만든다면, 그 근거로 우리는 자궁 밖의 유아, 투석 중인



사람, 장애인 및 노인을 죽일 권리가 생길 것이다. 의존하는 사람들을 모두 죽일 수 있을까?

두 명의 어머니가 임신한 지 몇 달이 지났다고 생각해 보라. 한 아이는 조산하고 다른 아이는 자궁에 남아 있다. 첫 번째는 생존을 위해 의학적 기구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어머니의 몸에 의존하고 있다. 조산아를 죽이는 것이 옳은가? 엄마가 칼을 들고 신생아 병동에 들어가 아이를 공격한다면 병원 직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조산아를 죽이는 것이 옳지 않다면 왜 뱃속에 있는 아이를 죽이는 것은 옳은가? 둘 다 의존적이다. 둘 다 어린아이다. 둘 다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

**주장 3: 여성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몸을 다룰 권리가 있다.** 우리는 그녀의 몸에 대한 여성의 권위를 확인한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몸으로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에 대한 제한이 있다. 낙태에는 아이의 죽음이 포함된다. 살아 있는 태아가 어머니의 신체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것은 비이성적이다. 어머니의 신체의 어느 기관인가?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심장이 뭘 때, 그것은 누구의 심장일까? 태아의 뇌파를 추적할 수 있다면, 그것은 누구의 뇌일까? 모든 임신에는 두 사람이 관련된다. 어머니와 태아, 이 양쪽 모두의 권리를 고려해야 한다.

두 사람의 권리에 대해 말할 때마다 우리는 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이용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강자의 책임이다. 특히 자녀를 보호하는 것은 어머니의 책임이다. 어떤 어머니가 자기 마음대로 자녀에게 무엇이든 할 권리를 갖고 있는가? 오히려 그녀는 자녀들을 돌보거나, 다른 사람이 자녀들을 돌보는 것을 지켜 볼 책임이 있다. 확실하게 모성은 희생을 요구한다. 우리는 어른들이 아이들의 생명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그들의 자원과 자유를 희생할 것을 기대해야 한다.

**주장 4: 섹스와 생식은 우리가 간섭해서는 안 되는 사적인 문제이다.** 우리는 인간의 성생활이 매우 사적인 문제라고 믿는다. 그것은 남편과 아내가 공유하는 깊은 친밀감을 표현한다. 그러나 섹스는 매우 공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우리가 성생활을 하는 방식은 질병의 억제 또는 확산, 여성을 대하는 것으로 명예 또는 강간, 아동에 대한 양육 또는 성적 학대, 사회의 기초인 가족의 강화 또는 해체에 기여한다. 따라서 사회는 섹스와 생식과 관련하여 결혼, 여성, 아동의 존엄성을 보호해야 하는 강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사람들은 때때로 미국 헌법이 섹스와 생식에 관한 문제에서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보장한다고 주장한다. 헌법을 읽어보라. 그러면 당신은 거기서 그런 권리를 찾지 못할 것이다. 실제로 수정헌법 제4조는 “영장” 없는 “불합리한 수색 및 압수”에 대한 보호권을 인정하지만, 성, 아동, 낙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누군가는 “침실에서 하는 일이 내 일인 줄 알았다”고 비꼬듯이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당신이 당신의 침실에서 아이를 살해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증거가 있다면, 그것은 당국이 공적으로 개입해야 할 문제가 된다. 사생활은 절대적인 도덕적 권리가 아니다. 아이를 죽이는 것은 절대적인 도덕적 잘못이다.

**주장 5: 낙태를 불법화하는 것은 여성들을 불법낙태시술로 내몰 것이다.** 낙태 옹호자들은 비전문가의 엉터리 시술로 수많은 어머니들(그리고 죽는 아이)이 피 흘리며 죽어갈 것이라는 추측을 널리 홍보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낙태가 합법화되기 전에 수행된 낙태 시술의 90%는 의사가 그들의 병원에서 수행했다. 낙태가 합법화되기 전에 수천 명의 여성이 죽었다는 정보는 근거 없는 이야기다. 1972년 미국에서 39명의 산모가 낙태로 사망했다. 「미국산부인과저널」(The American Journal of Obstetrics and Gynecology)(2010.3.26.)을 보면 낙태 합법이 “미국에서 낙태로 사망하는 여성의 수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다. ... 합법적 낙태는 현재 미국에서 낙태와 관련된 산모 사망의 주요 원인이다”라고 인정한다.

낙태 시술 실패로 사망한 모든 여성은 끔찍한 비극적인 상실이다. 그러나 낙태 시술 성공으로 사망한 모든 아이들 역시 그렇다. 우리는 낙태와 관련된 어른들을 좀 더 안전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 태아를 죽이는 것을 합법화한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더욱이, 낙태는 의학적이고 심리적인 위험이 있다. 낙태를 불법으로 만드는 것은 실제로 수백만의 여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것이다.

**주장 6: 원치 않는 아이로 사는 것보다 태어나기 전에 죽는 것이 낫다.** 첫째, 사람이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를 기초로 다른 개인의 미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 우리가 그들을 원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기초로 사람을 죽일 권리가 있는가? 이런 관점은 고도로 발전한 문화를 지닌 집단으로 하여금 지적으로 열등한 인종을 집단적으로 학살하도록 만든다.

둘째, 그 아이는 아무도 절대로 원하지 않는가? 많은 어머니들은 임신을 원하지 않았지만, 아이를 소중히 여겼고 특히 출산 후에 더욱 그러했다. 아이를 입양하려는 부모들도 많이 있다. 아이가 그의 어머니에게 지금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그 아이는 절대 사랑받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 받아서는 안 된다.

셋째, 이 주장은 이미 태어난 '원치 않는' 아이들에게도 끔찍한 적용이 가능하여진다. 만약 아이를 원하지 않는 상태로 내버려 두는 것보다 죽이는 것이 낫다면, 집 없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학대하는 부모를 둔 아이들은? 이런 아이들을 죽이는 것이 사랑이겠는가? 당연히 아니다. 사랑은 그들의 부모가 그들을 학대하지 않고 돌보게 만드는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그 아이들을 돌볼 부모를 찾아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이 정말 '원치 않는' 아이라면, 우리는 그들의 어머니가 그들을 다르게 볼 수 있도록 돕거나 아이들이 양부모를 찾도록 도와야 한다. 당신은 스티브 잡스가 그의 생모와 정부가 처음에 선택해 준 양부모에게 원치 않는 아이였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넷째, 한 사람이 사는 것이 더 나은지 죽는 것이 더 나은지 그것을 결정할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가 그 사람의 인생의 주인인가? 우리가 그 아이의 미래를 확실히 아는가? 많은 '원치 않는' 아이들이 어린 시절의 심각한 신체적 장애 및 정서적 장애를 극복하고 훌륭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어른들이 되어 있지 않은가?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살보다는 삶을 현명하게 선택하지 않는가?

마지막으로, ‘원하는’ 아이를 위한다는 겉으로 보기에 동정심어린 주장은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 이 주장은 기껏해야 감정적이고, 비논리적인 호소다. 최악의 경우, 극심한 이기주의를 가리는 가면이다.

**주장 7: 생명 옹호자들은 그들의 신념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한다.** 실제로는, 낙태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에게 자신의 견해를 강요한다. 매우 강하게도, 사실, 그것은 아이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다. 만약 태어나지 않은 아이가 인간이라면, 살인자로부터 아이의 생명을 보호하려고 하는 자들이 과연 그들의 신념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한다고 비난 받아야 하는 것일까? 만약 태어나지 않은 아이가 인간이라면, 낙태는 살인이다. 만약 낙태가 살인이라면, 우리는 온 힘을 다해 막아야 한다.

독립 선언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다음의 진리들을 자명하다고 믿는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특정한 권리를 부여받았다. 그 중에는 생명, 자유, 행복 추구가 포함된다.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피치자의 동의 아래 공의를 실행할 권한을 갖고 그들 가운데 설립된다.” 현재 일부 사람들의 권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평등”하다. 왜냐하면 그들의 “자유와 행복 추구”가 분명히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 국가의 정치적 기반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모든 사람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정치를 향해 국민의 투표권을 행사한다면 그들은 단지 독립 선언서가 말하는 대로 해야 한다.

낙태를 지지하는 7가지 기본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자, 낙태가 합법이어야 한다는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근거가 있는가? 위 주장들은 매년 백만 명 이상의 아이를 살해하는데 쓰이는 어설픈 이유다. 이는 모든 낙태의 5% 미만이 강간, 근친상간 또는 산모의 생명에 대한 위험 때문에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히 분명하다. 낙태의 95% 이상은 재정, 경력, 개인적인 편의 또는 기타 이기적인 이유 때문에 이루어진다. 이런 이유들이 사람을 죽이는 강력한 이유가 될 수 있는가?

## 6. 생명은 언제 시작되는가?

출처: *Abortion: A Rational Look at an Emotional Issue.*

저자: R.C. 스프로울

역자: 아브라함 장

“생명은 언제 시작되는가?”라는 질문은 생명 그 자체의 비밀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인간, 삶, 인격 등의 개념은 오랫동안 수많은 토론과 분석의 대상이 되어왔다. 플라톤은 인간이 다른 종(種)의 모든 동물들과 명확히 구별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무척 애를 썼다. 마침내 그는 ‘깃털이 없고 두 발로 걷는 동물’이라는 잠정적 정의에 도달했다. 이 정의는 플라톤 자신의 학생들 중 한 명이 털이 다 뽑힌 닭 한 마리에 ‘플라톤의 남자’라고 적힌 쪽지를 달아 그의 아카데미 담 너머로 던져 넣으면서 그 수명이 다하게 되었다.

성경을 살펴보면, 생명이 어떤 특정 시점에 시작된다거나,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도 생명이 존재한다는 명확한 진술을 제공하지 않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렇지만 성경은 출생 전부터 출생 후까지의 생명의 연속성을 상정한다. 두 상태에 대하여 동일한 언어와 동일한 인칭대명사가 차별 없이 사용된다. 더 나아가, 사람의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은 임신의 시점까지 (또 그 이전까지도) 거슬러 올라간다. 다음 구절은 이런 사실을 뒷받침한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옵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시편 139:13-16).

시편 기자는 모태에서 자신을 만드신 것을 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또한 그는 태어나기 이전의 자신을 가리켜 ‘나’라는 인칭대명사를 사용한다. ‘다 이뤄지지 않은 형질’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가 ‘배아’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라는 사실은 주목할 만한 점인데, 성경에서 이 단어가 이처럼 사용된 것은 여기에서가 유일한 경우다.

태중에 있는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과 관련된 또 하나의 성경 구절이 이사야서에 나온다. “성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이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 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사 49:1-5).

이 구절은 아직 출생하지 않은 아기가 엄마와 구별된, 독특한 인격체로 취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아기가 모태에서 형성되는 과정이 하나님의 활동이었음을 시사한다.

예레미야 선지자와 관련해서도 유사하게 취급된다.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렘 1:4-5). 예레미야는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알았다는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은 한 사람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에 그 사람 예레미야에 대한 인격적인 지식을 갖고 계셨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출생 전 예레미야를 인격적인 존재로서, 인격적으로 대우하셨다는 것을 나타낸다. 아울러 출생 전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이미 ‘따로 구별’ 혹은 성별하셨다는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분명한 점은 하나님께서는 존엄의 원리를 모태에 있는 생명체로 확장하고 계시다는 것이다. 생명이 출생 전부터 시작된다는 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잉태된 아이와 출생한 아이 사이에 연속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모든 아기는 출생 이전의 과거가 있다.** 쟁점은 이런 것이다. 인간성이 바로 출생 시점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면 그 과거라는 것은 인격적인 부분인가, 비인격적인 부분인가? 하는 것이다. 성경은 인간성이 출생하기 전에 시작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음은 명확하다. 다윗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여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시51:5)라고 고백한 것을 두고, 존 프레임 교수는 의료 윤리에서 “인격적 연속성은 잉태의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말하며, 해당 시편 구절에 대한 자신의 소견을 밝혔다. 시편 51편 5절의 구절은 놀랄 정도로 명료하게 인간성의 연속성을 잉태의 시점까지 되돌린다. 이 구절에서 다윗은 얼마 전에 간음과 살인의 형태로 발현된 죄가 그의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음을 인식한다. 그의 마음의 죄가 최근의 현상이 아니라 어머니의 뱃속에서 자신이 잉태된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임을 그는 인정한다. 다윗의 태아로서의 삶과 성인으로서의 삶 사이의 인격적 연속성은 잉태의 순간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심지어 하나님과의 윤리적 관계로까지 확장된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잉태의 시점까지 아우르는 자기 개인의 도덕적 역사를 이야기한다. 비인격적 존재, 즉 ‘원형질 덩어리’는 도덕적 대상이 될 수 없다. 만약 다윗 개인의 도덕적 역사가 잉태의 시점까지 확장된다면, 그의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시점까지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 단지 다윗의 생물학적 실체만 잉태의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의 도덕적 기질도 그러한 것이다.

신약성경은 출생 전 생명의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본문을 제공한다. “[마리아가]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눅 1:40-44).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례 요한을 잉태한 그녀의 사촌 언니 엘리사벳의 만남을 묘사하고 있다. 그 둘이 만나자마자 아직 어머니 태중에 있던 요한이 기쁨으로 뛰놀았다. 이런 행동은 메시아를 ‘선전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요한의 선지자적 역할과도 맥이 닿는다. 이 경우에 요한은 자신 혹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자신의 선지자적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다. 이 구절은 자신의 출생 전에 요한이 스스로의 인식과 감정을 드러냈음을 보여준다. 스스로 기쁨의 상태에 있었기에 그는 뛰놀았던 것이다. 그것은 메시아의 존재를 인식함으로써 생긴 기쁨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1)여기서는 저자가 시적으로 또는 과장법을 통해 표현하고 있고, (2)해당 구절이 잉태된 생명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말하지 않고 오직 출생 전 생명에 대해서만 말해 주며, 혹은 (3)이 사건은 하나의 특별한 기적을 나타내는 것으로 다른 아기들도 그와 같은 태아적 능력을 가질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구절의 관련성을 묵살할는지 모르겠다. 첫 번째 반론에 답변하자면, 이 구절이 시적이거나 과장된 표현이라는 이유로 묵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누가복음에서 이 본문의 문학적 형태는 시가 아니라, 역사적 서사임이 명백하다. 또 과장법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 대한 과장된 표현인데, 만약 이 사건이 과장법으로 표현되고 있다면, 그것은 요한이 본문이 함의하고 있는 만큼 높이 뛰지는 않았거나 또는 그 정도까지는 인식하지 못했을 것을 의미할 뿐이다. 두 번째 반론에서 잉태가 생명이 시작되는 시점이라는 것에 대해 본문이 아무 것도 말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은 옳다. 하지만 본문은 요한이 출생 전부터 인간의 인지 능력과 감정(인성의 표지들)을 갖고 있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 사건은 하나의 특별한 기적이었다는 세 번째 반론은 더욱 무게감 있는 지적이다. 정상적인 태아가 가까운 곳에 있는 다른 여성의 자궁 속에 있는 다른 태아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발생한 사건에는 기이하거나 기적적인 원가가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만 한다. 하나님께서 출생 전의 요한에게 기적적인 능력을 주셔서 출생 전의 보통 다른 아이들이 갖지 못한 특별한 인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기적을 인정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어려운 문제가 남게 된다. 그 기적은 정상적인 능력이 일반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행위였을까, 아니면 그런 능력을 새롭게 주신 행위였을까? 출생 전의 세례 요한은 자연적인 인지 능력과 감정 등 여러 능력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능력들이 기적에 의해 확대되었을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인지 능력과 감정을 주셨던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해 완벽하게 답변할 수는 없다. 하지만 누가복음의 해당 본문을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는 두 가지를 주의 깊게 살펴야만 한다. 다른 여러 기적들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존재하는 힘이나 능력의 정도를 확장시키는 모습을 보게 된다. 예컨대, 열왕기하 6장 15-17절에서 하나님은 엘리사의 사환의 눈을 여셔서 그로 하여금 수많은 천군들을 볼 수 있게 하셨다. 여기서 하나님은 그 사환에게 보게 하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 처음부터 기적을 행하실 필요가 없었다. 오히려 그의 볼 수 있는 자연적 능력의 한계가 확장된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와 요한이 각자 자기들 어머니의 태중에 있는 동안 요한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인식 능력과 감정을 새롭게 만드실 필요가 없었다. 두 번째로 살펴야 하는 것은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한 가지는 분명하다는 점이다. 즉, 세례 요한은 태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인지 능력과 기쁨의 감정을 나타냈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성경은 태어나지 않은 아기들이 출생 전에도 살아있는 인간으로 여겨진다는 것을 확실히 말하고 있다. 성경적 증거는 생명은 임신과 함께 시작된다는 점에 무게감을 더한다.

**한 인간의 발달은 임신에서 시작하여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과정이다.** 인간의 발달은 임신과 함께 시작된다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임신의 순간에 어머니로부터 23개, 아버지로부터 23개를 물려받아 총 46개의 유전자가 결합하며, 이를 통해 하나의 고유한 개체가 그 개인의 인간 발달 과정을 시작하게 된다. 2주가 지나면 식별 가능한 심장박동이 나타난다. 배아 안에서 심장이 작동하여 어머니의 혈액이 아니라, 출생 전의 그 아기가 스스로 생산한 혈액을 순환시킨다. 대략 6주가 지나면 배아는 여전히 크기 면에서 1인치도 채 안 되지만 상당히 발달된 상태에 이른다. 양 손에는 손가락이 형성된다. 43일이 지나면 출생 전의 아기에게서 감지 가능한 뇌파가 발생한다. 6주 반이 지나게 되면 배아가 움직인다. 그렇지만 뱃속의 아이가 여전히 작은 상태이고, 어머니의 복벽의 두께가 있기 때문에 어머니는 몇 주가 더 지날 때까지 태아의 ‘태동감’ 또는 움직임을 감지하지 못한다. 9주가 다 지나갈 무렵에는 태아가 발달을 지속하여 독특한 지문을 갖게 된다. 이 무렵에는 이미 남자 태아의 생식기가 나타나게 되어 태아의 성별 구분이 가능하다. 신장 두 개도 이미 형성되어 기능하게 된다. 10주가 다 지날 무렵에는 담낭도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12주가 끝나 갈 때쯤에는 신체의 모든 장기들이 기능을 하게 되며, 아기는 울 수도 있다. 이 모든 발달이 임신 후 3개월 동안 이뤄진다.

성인의 경우, 흔히 심장박동과 뇌파를 생명징후라고 부른다. 뇌파와 심장박동이 어느 기간 동안 멈추게 되면, 그 환자는 법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을 수 있다. 생명징후는 생명이 살아 있다는 증거들이다. 발달 상태의 배아에 그런 생명징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사람들이 태아의 생명에 대해 논하기를 상당히 꺼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배아 혹은 태아가 아직은 독립적인, 이 땅에 태어난 인간 개체가 아닐지라도, 그것이 그/그녀가 살아있는 인간이 아니라는 의미는 아닌 것이다. 만약 독립성이 살아있는 사람들과 살아있지만 사람이 아닌 존재들로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라면, 심지어 출생 후에도 살아있지만 사람이 아닌 존재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미 어떤 이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인정해야만 한다. 출생과 함께 아기는 어머니로부터 육체적으로 분리된다. 이런 의미에서 신생아는 독립적이다. 하지만 신생아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외부의 도움에 필사적으로 의존하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 신생아는 스스로 호흡할 수는 있지만 스스로 영양분을 섭취할 수는 없다.

생명의 존재를 이해하고자 하는 우리의 탐구에 있어 죽음을 이해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 죽음이란 생명의 멈춤이기 때문에 이 사실에서 생명의 본질적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생명과 죽음에 대한 우리들의 정의가 내포하는 한 가지 문제를 사산아(死産兒)의 경우에서 볼 수 있다. 사산아는 “죽은 아기”인가, 아니면 ‘한 번도 살아 본 적이 없는 아기’인가? 의사들이 사산아에 대하여 너무나 흔히 ‘죽은 아기’라고 말한다.

태아는 살아있는 인간처럼 보인다. 태아는 인간처럼 행동한다. 배아에는 인간의 유전적 구조가 들어있다. 또 살아있는 인간의 생명징후들을 나타낸다. 태아는 성(性)을 가지며 움직임을 보인다. 태아는 때로 자기 엄지손가락을 입으로 빨기도 하고, 음악에 반응하기도 하며, 발차기도 한다. 이처럼 누적된 증거들을 볼 때, 태아가 살아있는 인간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이것들과 반대되는 강력한 증거가 필요해 보인다.

사람들은 왜 이런 결론을 거부하는 것일까? 그것은 선입견 때문이다. 실로 선입견은 낙태

와 관련한 논쟁에서 강력하게 작용하는 힘이다. 만약 우리가 배아 혹은 태아를 살아있는 한 인간으로 간주하게 되면, 출생 전에 그 인간을 파괴하는 것에 대한 도덕적 함의는 엄청난 것이다! 우리들 스스로 출생 전 태아는 인간이 아니라고 확신시킨다면 그러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우리가 출생 전 배아가 살아있는 인간이라고 결론을 내린다고 할지라도 생명이 임신과 함께 시작된다는 이해가 확립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확립한 내용은 생명은 출생과 함께 시작한다는 것이 전부다. 임신과 출생 사이의 연속선 상에서 가장 분명한 경계선은 임신과 출생 그 자체다. 만약 우리가 태아는 출생 전 5분, 아니 5초 전부터만 살아있는 인간이라고 인정하더라도 출생은 생명이 시작되는 시점이 될 수 없다. 본인의 판단으로는 태아가 출생 전부터 살아있는 인간이라고 보게 하는 과학적 증거는 성경에서 유추되는 증거들만큼이나 무게감을 갖는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우리는 생명의 시작을 임신의 시점, 또는 임신과 출생 사이의 어느 한 시점에 맞춰야만 한다.

~~~~~

바울은 그 옛날 이방인들에 대하여 ‘무정한 자들’이라고 말한다(롬 1:31). 그가 여기서 지목하는 대상은 로마인들 사이에 존재했던 야만적인 관습이다. 그들은 자녀 교육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또는 자신들의 정욕을 채울 자유를 누리기 위해 자기들의 자식들을 자궁에서부터 파멸시키는 죄를 지었다. 그 정도로 죄는 자연 법칙을 말살하고 자연의 힘과 능력을 격퇴시킬 만큼 힘을 발휘했다. 죄의 기만적인 추론을 통해 여성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살해하는 사례들은 우리들 가운데, 그리고 모든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또 죄는 태아 살해에 있어서 자연적인 강한 흐름을 뒤집어 영혼에 비치는 하나님의 빛을 어둡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 명령의 권세의 영향을 받는 모든 자연적 원리들을 통제한다. 이런 악은 죄의 효능을 통해 더욱 악화되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자기의 아이들을 죽이고 잔인하게 희생시켰다. - 존 오웬

하버드대학교의 저명한 헌법학 교수인 로렌스 트라이브 교수는 단호하게 아동학살을 지지하였지만, 낙태는 성경적 정통주의를 마침내 완전하게 포기한 자들만이 옹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는 본질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생명권 지지자들 (pro-lifers)과 선택권 지지자들(pro-choicers) 간의 거대한 싸움을 기독교 절대 원칙과 이교도적 절대 원칙 간의 싸움으로 정의한다. - 조지 그랜트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즉 술 취함, 노예제도, 유아 살해 등을 싫어하게 하고 그것들을 온 지면에서 완전히 쓸어 없애길 갈망하게 만든다. - J. C. 라일



## 7. 하나님의 말씀과 낙태에 관한 선언

출처: *Is Abortion Really So Bad?*

저자: 조엘 비키 (1952년- ) : 미국의 개혁주의 목사이며 청교도 신학자. 미국 미시간주 그랜드 래피즈에서 목회를 하고 있으며 청교도 개혁 신학교 총장. 조직신학과 설교학을 강의. 웨스터 민시간 대학교, 토마스 에디슨 대학교, 네덜란드 개혁신학교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공부.

역자: 김선형

**선언 1: 하나님은 그의 형상을 따라 인류를 창조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감적으로 인간이 동물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걸 알고 있다. 진화론조차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닌 인간의 생명에 대한 고귀함을 아는 지각을 완전히 지울 수 없다. 동물들이 아름답고 가치 있어도 우리는 한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양심의 거리낌 없이 회색 공을 죽일 것이다. 우리는 사람들이 특별하다는 걸 알고 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말할 때 이러한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설명한다. 남자와 여자는 나이와 상관없이 새와 짐승보다 훨씬 특별한 가치를 가지는데(마 10:31) 이는 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가장 특별한 창조물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인류를 소중히 여기고 보호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유용성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독특한 방식으로 대변하기 때문이다.

**선언 2: 하나님은 주권자로서 삶과 죽음, 능력과 장애를 통치하신다.** 우리는 또한 다른 사람들의 생명에 대해 “하나님처럼 행동하는”것은 옳지 않다는 의식이 있다. 우리는 마치 사람들을 소유한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들을 처분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의 모든 창조물을 소유하고 다스리는 왕(시 95:3-5)이라 말하며 이를 설명하고 있다. 그는 홀로 무엇이든 그가 기뻐하시는 대로 사람들에게 행할 주권이 있다(단 4:35).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죽음이나 고통이 없이 모든 것이 “심히 좋았다”(창 1:31). 아담이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함으로 죽음이 세상이 들어왔다(창 2:17; 롬 5:12).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한 그의 주권을 유지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삼상 2:6). 그는 인간의 능력과 장애를 다스리신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병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뇨”(출 4:11).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거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일지라도 인간 개개인의 삶을 하나님의 손길의 관점에서 받아들이도록 가르치고 있다. 하나님은 악에서 선을 끌어내는 놀라운 방법을 가지고 있다(창 50:20). 우리는 우주의 왕이신 그의 권위에 굴복해야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인 채 행동해서는 안 된다.

낙태는 오직 주님께 속하여 있는 생명을 인간 손에 넘김으로 신성한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 그것은 주님의 주권을 모욕하는 것이며 바른 결정을 위해 필요한 지혜도 없이 어리석게

결정권을 움켜쥔 것이다. 다음의 역사적인 사례를 살펴보자. 아버지는 매독에 걸렸고 어머니는 결핵에 걸렸다. 그들은 이미 4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다. 첫째는 시각장애자, 둘째는 죽었고, 셋째는 청각 장애자이며 언어 장애자이고 넷째는 결핵을 앓고 있었다. 그 엄마는 다섯 번째 아이를 임신했다. 당신은 그들을 위해 낙태수술을 해줄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유명한 독일의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인 루트비히 판 베토벤(1770-1827)을 죽인 것이다! 인간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인 채하는 것은 비극적인 결과를 낳는다.

**선언 3: 하나님은 무고한 인간의 생명을 죽이는 것을 금지했다.** 타락 이후에도 인간의 마음은 죄로 완전히 부패하여 있었지만(창 6:5)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의 잔재가 남아 있으니(약 3:9), 인간의 생명을 매우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나님은 창세기 9장 6절에서,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라고 말했다. 십계명 중 여섯째는 “살인하지 말찌니라”(출 20:13)고 하는데, 이는 우리가 무고한 인간의 생명을 빼앗지 말라는 뜻이다.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신성한 형상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선언 4: 하나님은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인격을 인정하신다.** 하나님은 자궁안에서 각각의 아이를 개인적으로 형성하신다. 욥은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욥 33:4)고 말했다. 다윗은, “주께서…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옵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시 139:13,14)라고 하며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하나님이 뱃속에서 만드신 “나”는 영혼을 지닌 사람이다.

다윗은 또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여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시 51:5)라고 고백했다. 뱃속에 잉태된 상태에서 그는 “죄 중에” 있었다. 사물들과 동물들은 죄인들이 될 수 없는데 이는 그들에게 어떤 도덕적인 책임이 없기 때문이다. 오직 사람만이 죄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잉태될 때부터 죄의 상태에 있다는 슬픈 현실이 잉태가 사람의 인격을 만든다는 것을 입증한다. 낙태는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다. 그것은 계획적인 살인이다.

**선언 5: 하나님은 태아를 살인한 자들에 대해 그의 심판을 선언하신다.** 주님은 나그네든 과부든 고아든 강한 자들에게 억압을 받을 때 약자들을 향한 특별한 연민을 갖고 있다. 그는 억압자들에 대해 치명적인 분노를 보이신다(출 22:21-27). 태어나지 않은 아이보다 더 연약한 사람은 없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한 법률에 이 율법을 포함시켰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 밴 여인을 다쳐 그녀의 열매가 그녀에게서 떠났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좇아낼 것이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갚을찌니라”(출 21:22-23). “그녀의 열매가 그녀에게서 떠났다”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그녀의 자식이 나왔다”는 것이다. 이 법은 두 남자가 싸울 때 임신한 여성이 유산함으로 부상을 입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 만일 하나님이 우발적으로 초래된 낙태에

대해 형벌을 명하신다면 고의적인 낙태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처벌하시겠는가? 하나님은 여성에게 해를 끼치는 모든 죄를 미워하시지만, 특히 임신한 여성에 대한 폭력의 죄는 그 죄를 범한 민족(암 1:13)을 벌하신다.

이는 낙태 제공자들에게 개인적인 복수를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은 만약 우리나라가 무고한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가혹하게 다룰 것을 경고한다. 제시 헬름스 상원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적었다. “한 국가의 국민이 무고한 인간의 삶의 신성함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것은 도덕 문화의 최고 수준이다. 위대한 국가는 폭정과 인간의 타락에 대항할 수 있는 비전과 힘을 주는 위대한 원칙을 따르지 않을 때 무너진다. 어떤 국가도 낙태를 받아들일 때 자유로울 수 없고 도덕적 리더십을 행사할 수 없다.

**선언 6: 하나님은 죄 사함을 받도록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도록 하신다.** 우리가 낙태를 반대하는 하나님의 선언을 선포할 때 우리 역시 우리의 여러 죄악에 대해 애통해야 한다(롬 3:23). 우리는 하나님에게 긍휼을 입은 죄인들처럼 말하고 다른 죄인들도 동일한 긍휼을 입도록 초대해야 한다. 이런 목적을 위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인을 위해 죽고 다시 일어나도록 하셨다.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행 5:31).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그에게 나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용서의 약속이 있다. 그러나 그 용서는 회개의 명령과 맞물려 있다(눅 24:47). 회개란 죄인이 자신의 죄악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의 선함을 깨닫고 죄에 대한 증오와 슬픔, 그리고 그의 은혜로운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온전한 의도를 가지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하는 죄인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마도 당신은 낙태를 지지한 당사자가 되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당신은 당신의 아이의 죽음을 부추긴 아버지, 치명적인 의료 기구에 자신을 내맡긴 어머니, 그 수술을 집도한 의사나 간호사, 공공정책에서 낙태에 대한 목소리를 높인 지지자, 또는 항의 없이 수백만 명의 아이들을 죽게 내버려 둔 말 없는 시민일 수 있다. 이럴 경우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에 도전하며 사람의 피를 흘린 죄를 지은 자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부르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찌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찌라도 양털 같이 되리라”(사 1:18)고 약속하신다. 그는 못 박힌 손을 당신에게 내밀며 당신을 부르며 “오라”하고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사 55:1,7)고 약속하신다.

~~~~~

더 소름 끼치는 사태는 『의학윤리 저널』에 막 게재된 기사 형식으로 낙태 옹호 주장이 떠오르는 것이다. 밀라노 대학의 엘베르트 주빌리니 교수와 엘버른 대학과 옥스포드 대학의

프란체스카 미네르바 교수는 지금 ‘산후 낙태’의 도덕성과 합법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입안자들은 자신들의 의도를 숨기지 않는다. 그들은 갓난아이의 합법적 살해를 요구하고 있다. 주빌리니와 미네르바는 갓 태어난 아기들은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출산 후 낙태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입안자들은 ‘영아 살해’보다 ‘산후 낙태’라는 용어를 선호하는데, 이는 출산은 도덕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갖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해명하는 주장을 제안한다. 첫째, “유아의 도덕적 지위는 태아의 도덕적 지위와 동일하다. 즉, 어느 쪽도 도덕적인 면에서 ‘인격’으로 간주될 수 없다.” 둘째, “도덕적인 인격이 되는 것을 막는 것이 신생아에게 해를 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유아의 도덕적 상태는 태아의 도덕적 상태와 동일한데, 이는 둘 다 개인에 대한 생명권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속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주장들은 의학 윤리학의 학술 문헌에 지금까지 등장한 그 어떤 주장보다 더 소름 끼치는 것이다. 이것은 유아 살해를 허용하는 직설적인 주장이다. 그런 학술 문헌을 쓴 자들은 그들의 주장이 공공정책이 되도록 하려는 충분한 의도를 가지고 쓴 것이다. 나아가 ‘산후 낙태’로 사망할 수 있는 아이의 허용 연령의 상한선조차 정하는 것을 거부함으로 자신들이 제안하는 노골적인 악을 드러내고 있다. — 알 모홀러(Al Mohler)

우리에게는 살인에 대한 법이 있다. 태아가 법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인간으로 인정된다면, 낙태는 당연히 살인으로 간주될 것이다. —알 모홀러

## 8. 몰렉은 잘 살아있다

출처: “Abortion: The Killing Fields” in *Biblical Healing for Modern Medicine*.

저자: 프랭클린 패인(Franklin E. Payne); 의학박사: 미국의 의사. 조지아 의학대학교에서 25년간 가정 의학을 가르쳤음. 그는 힐튼 테렐(Hilton Terrell) 의학박사와 함께 ([www.bmei.org](http://www.bmei.org)), 세계관과 함께([www.biblicalworldview21.org](http://www.biblicalworldview21.org)), 그리고 성경적 기독교 철학([www.biblicalphilosophy.org](http://www.biblicalphilosophy.org))과 함께 성경적 의학 윤리에 대한 자세하고 방대한 내용을 썼음.

역자: 김혜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체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레 20:1-5).

몰렉은 암몬인들의 신으로 아이들은 “불을 통과하여” 그에게 나아갔다. 즉, 그들은 희생제물이 되었던 것이다. 희생은 신들의 호의를 얻기 위하여, 그리고 번영, 즐거움과 권력을 얻기 위하여 바쳐진다.

낙태는 그것과는 다른가? 더 요약하여 말하자면, 낙태는 아동 희생이 아닌가? 낙태를 하는 이유들은 분명하다. 사람들은 종종 음행과 간음으로 생물학적 결과 없는 성적인 쾌락을 원한다. 사람들은 번영을 원하나 자녀들은 많은 돈이 들어가며, 권력과 명예를 주는 활동들을 방해한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많은 불편함을 야기한다. (자유주의자들에 따르면) 자녀는 여성이 집에 갇힌 “노예”가 되는 것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오늘날 몰렉은 살아있으며 아주 잘 살아 있다. 사람들은 자녀의 희생에 대하여 어떤 신이 상을 줄 것이라는 믿지 않으나, 그들의 자녀를 멸함으로 상을 얻을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위 구절에서 하나님의 입장을 분명히 확인하도록 하자. 자녀를 제물로 바친 사람뿐만 아니라, 그 행위를 알며 면벌을 허락한 사람(눈을 가린 자들)은 돌에 쳐 죽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 사람에게에만 임한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에게도 임하였다. 오늘날 정부와 의료인들이 공식적으로 아이를 희생시키는 것에 가담할 때, 우리의 사회의 대부분은 자신들의 눈을 가린다. 최악인 것은, 본인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행위를 묵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의사들은 이 제물을 바치는 제사장들이다.

미국 국민들은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히 13:8). 하나님은 그분의 심판을 우리에게 가져오실 것이다.

**낙태는 하나의 증상이다.** 의료 행위의 기본 원칙은 증상과 질병의 구별이다. 예를 들어, 기침은 폐렴, 부비동염, 폐암, 결핵 또는 다른 수많은 질병의 증상이다. 같은 원칙이 이 곳에

적용된다. 낙태는 질병이 아니라 증상이다. 이 질병은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세속적 인본주의다. 좀 더 자세하게, 그것은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는 반신적(反神的) 사고방식이다. 낙태를 금하는 법을 통과시키는 것만이 치유법이 아니다. 치유법은 중생 또는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세속적 인본주의자인 사람을 성경을 믿는 자로 변화시키신다.

낙태를 반대하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타협할 수 없는 윤리다. 낙태 행위는 하나님의 성향과 그분의 인류에 대한 설계에 전적으로 반대된다.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은 죽음의 하나님이 아닌 생명의 하나님으로 묘사된다. 생명의 참된 정의는 하나님과의 교제다. 무고한 사람들의 죽음이 어떤 문제에 대한 성경적 해결책이라는 것은 어디에도 없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고아의 하나님으로 묘사하시며 고아를 특별히 돌보실 것을 명령하셨다(신 14:29; 사 1:17; 약 1:27). 확실한 것은, 오늘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은 아직 아버지가 없다. 대법원은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 Wade) 사건 판결에서 아버지는 태어나지 않은 아기에게 대해 무엇이든 말할 권리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 법은 혼외 임신으로 생긴 아기뿐만 아니라, 혼인 중에 임신된 아기에게도 적용이 된다. 그러므로 결혼의 파괴는 태어나지 않은 아기를 함께 찢을 수 있다. 이런 혼인 파탄은 하나님의 심판이 가정에도 임하지만 개인에게도 임하게 되는 이유다(레 20:5).

태아들은 가장 무방비 상태에 있다. 그들은 항의의 목소리를 낼 수 없다. 그들은 위험에서도 망칠 수 없다. 그와 대조되게, 하나님은 태아들이 가장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셨다. 그들의 자양분은 지속적이며 신뢰할 수 있다. 그들의 환경은 꽤 편안하며 변하지 않는다. 그들은 사람들과 교류하며 그들로부터 상처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들은 육체적으로 잘 보호받고 있으며, 종종 그 어머니가 크게 다쳐도 그들은 잘 보호를 받는다.

**낙태와 가족:** 우리는 낙태가 가족의 파멸만큼 인간 생명의 파멸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가장 친밀한 인간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본질인 “한 몸”이다(창 2:24; 마 19:1-10).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돌보아야 하는 가장 높은 요구는 남편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하고(엡 5:25) 그녀를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해야 하는 것이다(엡 5:28-29). 이 하나 됨의 부정적 진술은 당연히 일곱 번째 계명이다. “간음하지 말라”(출 20:14).

대부분의 낙태는 성적 문란함의 결과인 임신을 위한 “치유법”이다. 이 문란함의 정도는 하나님의 결혼을 위한 성(性)의 설계에 부여된 가치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확실히 가장 “기독교적”인 사회는 어느 정도의 성적 부도덕성을 갖겠지만, 가정이 평가절하된 사회만큼 공공연하거나 만연하지는 않을 것이다. 문란한 남자와 여자 둘 다 성적인 한계를 결혼으로 두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진술한다. 낙태, 그 연합으로 만들어진 생명의 파괴는 아이가 태어났을 그 가족의 가치를 더욱 부정하는 것이다. 문란함으로 인한 임신이 낙태로 끝나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 아기는 입양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낙태는 문란한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가정에서 아이를 기르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부가적 진술이다. 사실 어머니는 자신의 태어나지 않은 아이가 가정에서 길러지는 것보다 죽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행동한다!

낙태는 가정의 쇠퇴를 더 많이 초래한다. 때때로 스트레스를 받은 어머니는 자신의 자녀를 두고 “내가 너를 지웠더라면 이 문제를 피할 수 있었을 텐데”라고 생각할 것이다. 당치도 않지만, 어떤 이들은 이 생각을 소리 내어 말하기까지 한다! 남편들과 아내들은 낙태가 임신에 대한 효율적이고 숨겨진 “백업(back up)”임을 알기에 간음을 덜 두려워한다. 나아가, 한 가정에서 자녀의 수가 증가하면서, 다음 자녀를 낙태하는 것으로 앞으로의 가계 부담을 막고 싶은 유혹이 커져간다.

낙태는 가정을 통제하는 국가를 돕는다. 성경적 모범은 다 자란 자녀가 그들의 부모가 더 이상 스스로를 돌볼 수 없을 때 그들을 돌보는 것이다(막 7:6-13). 만일 노인들이 자녀들 없이 본인들을 위한 충분한 준비가 없다면, 그들은 국가가 그들을 돌보는 것에 의존해야 한다. 한두 명의 자녀가 있더라도 그들이 부모를 감당할 부담은 그들 자신의 재정으로 감당하기에 무리가 될 수 있다.

**낙태의 사회적 결과:** 아기, 어린이 그리고 어른이 되는 것은 사회의 지식과 부의 원천이다. 안타깝게도, 어떤 이들은 인구가 많을수록 한 사람 당 이용 가능한 자원이 적어진다고 생각한다. 특히 산업 사회에서 증가하는 인구 자원은 고려되지 않는다. 첫째로, 이 아이들을 어른까지 키우는 데 필요한 물건과 서비스가 상당하다. 임신부는 특별한 옷과 의료 관리가 있어야 한다. 아기와 아이들은 옷, 음식 그리고 큰 집을 필요로 한다. 그들이 학교에 들어갈 때, 준비물과 선생님이 필요하다. 이 모든 항목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산업과 직업을 만들어낸다.

아이들은 학교에 들어갈 즈음에, 그들 자신이 구매자가 된다. 그들의 초기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으나, 오늘날 십대들의 지출성 수입은 엄청나다. 그리고 그들이 결혼하고 자녀를 갖게 될 때, 그들은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에 지불한다. 노동력에 들어서면서 생산자가 된다. 그들의 재능과 지식은 효율성과 생산을 증가시킨다. 그리고 그들은 납세자가 된다! 가정과 국가에 지고 있는 재정적 책임 때문에 아기들이 낙태되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만약 그들이 저축이었다면, 이것은 단기 저축이다. 결국 국가에게 낙태는 인력과 생산성에 있어 상당한 손실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은 결국 심각한 경제적 문제를 가져온다는 이치를 받아들여야 한다. 낙태는 그 자체만으로도 가증스러우나, 그 결과는 그 행위 자체를 훨씬 넘어가버린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롬 6:23). 직접적으로는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게, 간접적으로는 국가의 경제와 사회적 건강에 영향을 끼친다.

## 9. 큰 죄에 대한 위대한 용서

출처: 1876년 12월 31일 설교.

저자: 찰스 스펔전(1834-1892): 영국 침례교 목사. 영국 에섹스 켈베돈에서 출생.

역자: 장바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엡 1:7).

죄인이여!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분은 당신이 여태까지 저지른 가장 더러운 죄도 용서해 주실 것이다. 만일 살인의 죄가 당신의 양심에 있고 간음과 음행이 당신의 영혼을 어둡게 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저질러 온, 그 가중이 엄청나고 흉악한 죄가 당신의 책임으로 정당하게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요일 1:7)라는 말씀을, 그리고 "믿는 자마다 이 모든 일에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행 13:39)는 말씀을 기억하라.

루터가 때로는 너무 담대했지만, 나는 그가 죄용서의 주제에 대해 즐기게 말한 것을 좋아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짜 죄인들을 위한 가짜 구원자가 아니라, 그는 진짜 죄와 중범죄, 뻔뻔스러운 죄와 온갖 종류와 크기의 허물에 대해 진정한 속죄함을 주는 진정한 구원자다.” 그리고, 루터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사 1:18). 나는 자비의 문을 활짝 열어놓았다. 지금 이 자리에 스펔전 목사가 “당신은 너무 죄가 많아서 도저히 용서 받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나는 죄의 종류에 대해서 어떤 것도 말하지 않았다. 당신의 죄가 높은 산이나 구름위의 탑과 같이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의 자비의 큰 물결이 가장 높은 산의 꼭대기 위에 있는 죄도 온전히 덮어 없애버리고, 그 죄를 모두 삼켜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은혜를 주셔서 바로 오늘 이 시간에 당신이 이것을 믿고, 또 이것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의 위대함은 그 용서가 주는 자유함 때문이다.** 불쌍한 죄인 한 사람이 용서받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올 때, 예수님은 그에게 용서의 대가로 무엇을 지불해야 하는지,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무엇을 느껴야 하는지에 대해 묻지 않으신다. 다만 예수님은 그를 그저 용서하신다. 나는 당신이 다음과 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어쨌든 나는 내가 지은 죄의 대가로 어떤 마음이나 육체의 고통을 겪을 것이다. 더 많이 울거나 기도하거나, 혹은, 더 많이 행하거나 느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복음은 그러한 것을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당신의 공상에 불과하다. 복음은 말한다.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행 16:31).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죄에 대한 용서가 즉시, 돈 없이 값없이 그저 주어질 것이다(사 55:1).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의 위대함은 즉시 용서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즉시 당신을 용서하실 것이다. 아버지로부터 매우 사랑받는 딸이 하나 있었다. 아주 악한 때에, 그녀는 집을 떠나 런던으로 갔다. 그곳에서 아무 친구도 없던 그녀는



곧 악한들의 먹이감이 되었고 완전히 망가졌다. 그 도시의 어떤 한 선교사가 그녀를 만났고, 신실하게 그녀의 죄에 대해 그녀에게 말을 건넸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녀는 구원자의 발 아래로 오게 되었다. 그 선교사가 그녀의 아버지의 이름과 주소를 물었고, 결국 그녀는 그에게 아버지의 이름과 주소를 말했다. 그러나 그녀는 말했다. “당신이 나의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우리 가족에게 너무도 큰 불명예를 가져왔기에 아버지는 내가 보내는 어떤 편지에도 답장을 하지 않을 것이 매우 확실합니다.” 그들은 아버지께 편지를 썼고 자초지종을 말하였다.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온 편지의 봉투에 ‘즉시’라는 글자가 큰 글씨체로 쓰여 있었다. 봉투 안의 편지지에 그녀의 아버지는 다음과 같이 썼다. “나는 매일 내 딸 아이를 찾을 수 있기를 기도해왔습니다. 나는 지금 내 아이의 소식을 듣고 매우 기쁩니다. 내 딸을 즉시 집으로 오게 해주세요. 나는 내 딸을 무조건 용서할 것이고, 내 가슴으로 내 딸을 꼭 껴안아주기를 갈망합니다.”

자 이제, 영혼들이여! 만일 당신이 주님의 자비를 구한다면, 주께서 당신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주님께서 ‘즉시’라고 표시된 자비를 당신에게 보낼 것이고, 당신은 그 자비를 즉시 소유하게 될 것이다.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말을 들었을 때, 한 순간에 내게 어떻게 자비가 임했는지를 회상한다. 나는 즉시 용서함 받았다. 나는 예수님을 그저 바라보았고, 번개같이 빠르게, 바로 그 때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도 기뻐할 수 있는 죄 사함을 받았다. 왜 이와 같은 죄용서가 여기에 있는 가장 더럽고 추한 죄인, 가장 무정하고 회개할 것 같지 않은 당신에게 똑같이 적용되지 않겠는가? 주여, 죄 사함을 허락하소서. 그리고 찬양 받으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의 또 다른 위대함은 완전함이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용서 받으면, 그의 죄는 완전히 사라져 버리기에 마치 그 죄가 결코 없었던 것과 같아진다. 당신의 자녀들이 어떠한 열룩도 없는 습자책을 집으로 가지고 오지만, 자세히 보면 열룩이 지워진 부분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면, 죄의 기록 흔적이 남지 않는다. 용서받은 죄인들은 마치 그들이 결코 죄를 짓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다. “당신은 이 문제를 너무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결코 더 강하지 않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미가 선지자가 주님께 말할 때, “주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미. 7:19)라고 말하였다. 혹은 다시 건져져서 올라 올 수도 있는 얕은 물가가 아니라, 대서양 한 가운데와 같은 깊은 바다 속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던지신다는 것이다. “무엇이라고요! 나의 모든 죄가 사라졌다고요?” 그렇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신의 모든 죄는 완전히 없어진다. 예수님은 그 모든 죄를 그의 무덤 속으로 던지시고, 거기에서 모든 죄를 영원히 묻어 버리셨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롬 8:1)는 판결이 항상 나에게 있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은 사람을 누가 정죄할 수 있는가? 아무도 없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기”(롬 8:30) 때문이다. 만일 당신이 당신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취된 속죄에 의탁하면, 당신은 조건 없이 용서함을 받는다. 죽음이

나 지옥이나 그 어떤 것도 결코 당신을 그리스도에게서 나누지 못할 것을 알면서, 당신은 당신의 인생길을 평안히 갈 수 있다. 당신은 이제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고 영원무궁토록 그의 것이 될 것이다.

이제 나는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죄를 용서하는지, 나의 경우를 알려줌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한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을 확신한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죄 사함을 증명해왔고, 나와 같은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왔다. 나는 주님께서 죄로 가득 찬 한 남자를 취하셔서 그를 새롭게 하시고, 한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가 진실로 느끼도록 하신 것을 알고 있다. 그는 “아빠, 아버지”라고 외쳤다. 그는 기도하기를 시작했고 기도 응답을 받았다. 하나님은 그에게 수많은 방식으로 한량 없는 은혜를 나타내셨다. 바울과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믿었고 현재 우리 중 일부가 그러하듯이, 그 사람은 점차 하나님께 미쁘심을 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었다. 주님은 우리 중 일부에게 매우 친숙하고 친절하시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영적인 축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셨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므로, 나는 누구도 절망하지 말아야 된다고 방금 말했다. 자매여, 당신의 이마의 주름을 펴라. 당신은 “나는 결코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해왔다. 그러나 당신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항상 당신에게 있기 때문이다. 형제여, 당신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에 괴로움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은 항상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으므로, 당신이 그렇게도 은혜로우신 용서의 하나님을 근심하게 한 것에 대해 오히려 슬퍼해야 한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항상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으므로 우리 모두 용서 받을 준비를 하자. 오늘 자정이 임박할지라도 우리가 이 위대한 구속, 큰 죄에 대한 이 위대한 용서를 받을 때까지 이 용서의 주제를 떠나지 말자.

이와 같이, 나는 오늘 당신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이를 거부하면 당신은 위험하다. 나는 단지 이렇게만 말할 수 있다. 믿음으로 얻게 되는 용서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신뢰를 받기에 온전히 합당하시다. 지금 그분을 믿으라. 그러면 당신은 온전하고 값없이 용서를 받게 될 것이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당신을 도우셔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다. 아멘.